

## 우리밀과 국민건강

강 광 파 이사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이고 또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된 작물이라는 것이 신라나 백제의 고분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밀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이 조금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우리밀을 원해도 사실 그 밀을 다 충당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면 소비자는 소비자의 첫째 권리란, 안전할 권리, 그 중에서도 먹거리의 안전할 권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밀을 수입밀과 우리밀로 구분해 보면 우리밀은 수입밀과 아주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경작하는 과정부터 다르거든요. 우리는 외국에서 주로 미국에서 밀을 수입해 오는데 미국에서는 밀을 재배할 때 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겨울을 거쳐서 봄에 자라기 때문에 재배 과정이 아주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재배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농약,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농약 사용을 안 해도 되지만 미국에서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나라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어떠한 농약을 사용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수입해 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을

보면은 DDT라든지 EPN이라든지 디블노복스, 마라치온, 카바, 매칠오르마이드, 카보프람페놀, 클로로피리포스메칠렌, 스파메틸 이러한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15가지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밀 재배할 때 이러한 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직접 재배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환경독성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도 수출하는 밀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살충제로 유기인제 약들이 과수의 살충제로나 뿌려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확 후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Post Harvest라 해서 수확 후에 뿌려지는 약을 썩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뿌려대는 농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들, 자기네가 수입 해 가는 것들을 보면 미리 와서 '배를 수입해 간다.'하면 그 토양이 어떠한 재배과정이 어떠한 그것을 다 보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고 갑니다. 하지만 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좀더 안전한 것, 안전한 농산물,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수확량이 많아서 남아도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남아도는 것도 있거든요. 빵을 많이 먹는다는지, 옛날에도 밀을 그렇게 많이 수입해 오지 않았지만 요즘에도 400만톤이나 수입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우리밀로 대체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가 옛날에 없었던, 알지 못했던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식원병이라는게 예를 들자면 여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농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게 굉장히 어느 집에 가든지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느냐 하면 농약을 주지 않은 농산물을 먹임으로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농약이라는게 잔류되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면 해롭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곳에서 연관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미래의 면역 기능이 있다. 노화를 방지시켜준다. 물론 이러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보면 겨울을 지나는 곡식을 여름에 먹음으로써 우리의 기를 살릴 수 있다. 또는 제철에 나는 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소비자가 그런 농산물을 찾으려 해도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딸기에 어느 때 나는 과일이나 하면 겨울에 난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제철이 없잖아요. 그

래서 언제, 어떻게 나는 과일인지 사실 요즘 한창 제철인 수박과 참외가 어디에서 나죠? 거의 노지에서 생산했지만 요즘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온실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온실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뿌려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원치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그런 농산물을 원했기 때문에 생산자가 그런 게 아니냐, 보기 좋고 색도 좋고 때깔도 좋고 그러한 것만 소비자가 좋아했기 때문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따질 순 없겠지만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소비자가 점점 깨우쳐 졌는데 그렇게 보기 좋고 색도 좋은 것이 그 농산물을 잘 길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뿌려서 그런 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나라 농업의 목표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지만 백화점이나 다른 곳에 가서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이러한 것들의 값이 배 이상, 두배 이상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보기 좋은가 하면 그렇게 보기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들도 많이 깨우쳐져있고, 만약에 소비자들이 그런 게 깨우쳐지지 않는다면 생산자나 정부에서 깨친 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도농간의 교류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 간다고 알 수 없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고춧가루, 여름만 나면 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 고춧가루에 벌레 나는 것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소비자 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품,

많은 상품 또는 계약 관계라든지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밀가루가 썩어서 못 먹겠다, 밀가루에서 벌레가 나서 못 먹겠다,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고발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테스트도 많이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 많은 것을 과학적인 테스트로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관능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식빵을 사서 여러 곳에서 판매하는 식빵을 다시 몇 일을 상온에서 두고 봅니다.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우리가 그 빵을 판 집에 가서 물어 봅니다. 자기들은 방부제 전혀 쓴 일이 없다고 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

만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뿌려진 포스트 하베스트가 식품에 남아서 우리 몸 안에 잔류하는게 우리는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환영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또 요즘 우리밀, 물론 시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비싸다 하더라도 안전한 식품을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㉟

## 제43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개발하여 도·농 녹색교류 통한 제2의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이룩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 화합 농심한마당 잔치를 다음과 같이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다 음 ●

- ◆ 장소 : 울산 KBS방송국 본관 홀(울산 남구 달동)
- ◆ 일시 : 2002년 11월 26일 (화) 10:00~16:00
- ◆ 주최 : (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 주관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산·울산·경남연합회
- ◆ 문의사항 : 02-794-7270(본회), 052-260-8886(부산·울산·경남연합회)